

“50년 내공 心眼으로 ‘회전관통기법’ 창안 뿌듯”

영상위 21~23일 팸투어

순천드라마세트장·태백산맥박물관·고흥 소록도

컬처 & 피플

무형문화재 옥 장인 장주원



옥장 장주원 선생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의 물레는 장 선생이 전통방식으로 복원 제작한 옥 연마 도구.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중요무형문화재 제100호 장주원(77) 선생은 예부터 장신구로 쓰이던 옥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장인이다. 팔순 가까운 나이에도 그는 목포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 육관에서 여전히 제자들과 맘을 즐기고 있었다.

타고난 장인인 그의 손끝을 거치면 평범한 옥은 본래의 물성(物性)에서 벗어나 감흥을 주는 작품으로 거듭 태어난다. 작품들

“옥의 종주국 중국을 뛰어넘으려고 50여 년 동안 돌을 만졌습니다. 감히 말하자면 이제 8부 능선까지는 온 것 같습니다. 반드시 독자적인 한국의 미, 대한민국의 옥 예술이 세계무대에서 평가받는 계기를 만들 것입니다.”

장 선생은 이미 옥을 매만지는 일부 기술에서 중국을 능가했다. 독보적인 기능으로 인정받고 있는 연결고리 기법과 관통기법은 중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능이다. 연결고리 기법은 하나의 원석에서 실을 뿜듯이 둥근고리를 끊임없이 연결해 하나의 목걸이 형태로 만드는 고난도의 기술이다.

기능의 압권은 ‘회전 관통기법’으로 그가 창안한 것이다. 거칠게 묘사하자면 도너츠 모양 같은 옥의 내부를 일정한 두께로 파내는 작업이다. 물과 술을 담은 주전자들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이 기술을 완성하기까지는 무려 30년이 걸렸다고 한다. 직선형 옥에 구멍을 뚫는 것과는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옥의 내부 곡면을 따라가며 작업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시경 없이 수술을 하는 것과 흡사하다.

그런데, 그는 이 작업에 능수능란하다. 내공이나 다름없는 심안(心眼)이 있어서다. 연마기가 옥을 갈아내는 마찰열을 손으로 느끼면서 작업을 하는 데 마치 눈으로 보고 하는 것 처럼 감각같이 작업이 이뤄진다. 그럼에도 자그마한 주전자 하나 만드는 데도 6~7개월이 걸린다.

“회전 관통기법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완성한 비법입니다. 순전히 촉감 등 온몸의 감각을 총동원해서 작업해야 하는 어려운 과정이기도 하죠.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려는 데 어느 날 갑자기 영감이 떠올랐죠. 중국 전문가들은 한국의 첨단기술이 발달해서 레이저 등을 동원해 가공한 것이라고 착각

하기도 합니다. 그런말을 들을 땐 한국을 인정해주는 것 같아 자부심도 느낍니다.”

장 선생은 서울 종로 4가에서 손꼽히는 금, 보석 세공 전문가로서 일명 ‘목포 장(張)’으로 이름을 날렸다. 우연히 중국계 옥향로를 수리하다 때로돼 새롭게 택한 길은 불모지였다. 옥을 만드는 장인도, 참고할 만한 사적도 없어 스스로 배우고 깨우쳐야 하는 지난한 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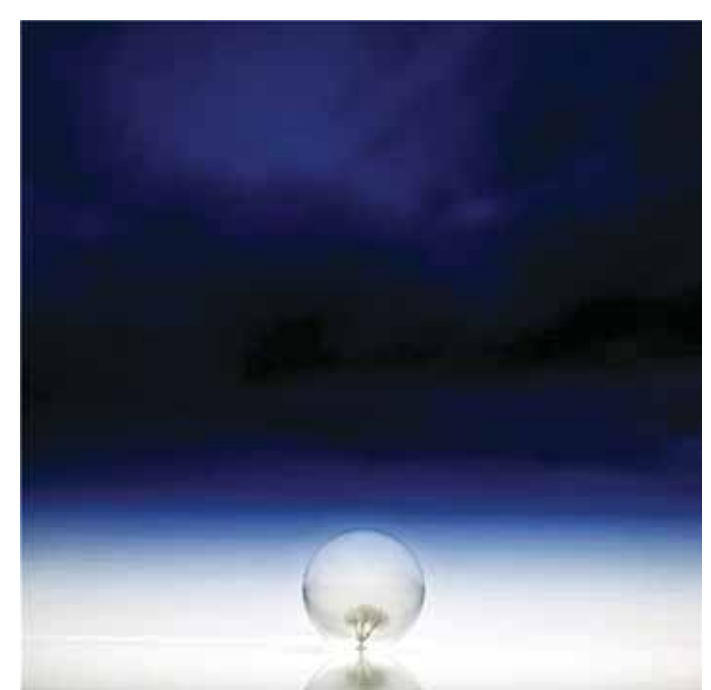
그는 지난 2009년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작품 46점을 광주시립미술관에 흔쾌히 내놓았다. 미술관측에서 우리 예술품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보였으면 한다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우리 옥 공예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국민들이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을 옥공예 종주국으로 여겼던 외국인들도 한국의 옥을 보면 느낌이 달라질 겁니다.”

팔순을 바라보는 그는 여전히 집에 마련한 공방에서 하루 15시간씩 작업에 매달린다. 틈틈이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목포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서 제자들을 가르친다. 평생 옥을 만져온 그는 이제 마지막 꿈을 펼칠 날을 준비하고 있다. 스미소니언 박물관, 뉴욕 메트로 폴리탄, 구겐하임 미술관 등 국제적인 공간에서 전시회를 여는 것이다. 개인적인 명예 보다는 한국의 옥공예를 세계에 선보이기 위한 마음 때문이다.

/목포=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2014 영상산업 관계자 초청 팸투어’가 21일부터 23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열린다. 전남도가 주최하고 전남영상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팸 투어는 전남지역 영화 유치를 위해 영화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전남 지역 명소를 방문,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영화제작환경을 직접 체험하는 행사로 매년 4회 진행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영화 ‘차우’ ‘엄격한 그녀’ 등의 기획과 제작을 담당한 와공이엔티의 서호승 대표 등 현재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영화 관계자 16명이 함께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이설제 작 '공존'

현실과 비현실의 모호한 공존

사진작가 이설제 광주展 22일부터 스토아아바나

사진작가 이설제씨는 사진을 찍는다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그는 사진을 통해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배경을 지우거나 첨가해 독특하고 몽환적인 회화느낌의 사진 작품을 만들어낸다. 작가의 작품은 때로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 그리고 오직 자신 안에만 존재하는 공간처럼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가 모호하게 표현되기도 한다. 이씨는 모든 과정에서 만들어진 따뜻한 이미지와 혼란스럽고 알 수 없는 이미지 사이의 모호한 느낌이 오히려 우리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다. 지난 4년 방동안 일부를 무대로 활

동해은 이씨가 광주에서 전시회를 갖는다. 복합문화공간 스토아아바나 초대로 22일부터 10월10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 주제는 ‘공존하다’(Coexistence). ‘모호’시리즈 후속 작업인 ‘공존하다’에는 작가가 설정한 유리공이 일관되게 등장한다. 이씨는 유리공 안에 다양한 사물들을 등장시켜 또 다른 관계를 형성한다. 유리공 속 공간은 사물들과 소통적 통로를 만든다. 작가의 이상향이다. 사진과 함께 작가의 다양한 시도들을 엿볼 수 있는 입체 작품도 전시된다. 이씨는 조선대 미술대학과 조선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문의 070-8885-8142. /김경민기자kki@kwangju.co.kr



연결고리 기법은 옥의 종주국인 중국에서도 못해요 스미소니언 등에 전시 한국의 옥 세계에 알리고파



녹옥 봉황 연 향로

보는 사람들은 기능적인 치밀함과 정교함이 빛어낸 경지를 보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기술적인 완성도와 예술성이 조화를 이룬 때문이다.

옥의 종주국 중국 전문가들도 장 선생의 작품에 현사를 아끼지 않는다. 옥을 은은하고 세련된 멋이 나는 현대적 디자인을 가미해 재해석하고 있어서다. 그를 만난 중국의 한 전문가는 “비로소 예술작품을 보게됐다”는 극찬을 남기기도 했다. 옥의 종주국이라고 자부하는 중국에서도 기능과 실용성을 강조한 공예품만을 보왔다는 고백이었던 셈이다.

그는 지금까지 옥을 만지면서 한 번도 중국을 잊은 적이 없다. 1996년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옥장이 된 것도 그에게는 성취가 될 수 없었다. 중국의 옥제품을 뛰어넘는 한국의 예술을 보여주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since 1982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대한민국, 미국, 독일, 덴마크, 캐나다, 노르웨이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보약 홍삼은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메금주 박주환